

함께 즐거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98

2018.8.19

- 여름특집호 -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가노라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 빌립보서 3:12-14

오늘의 주요기사

- 2 전국교회수련회
- 4-5 여름특집-성경학교
- 6-9 여름특집-비전트립
- 10 청소년 소식
- 11 목회칼럼
- 12 아기나들이 /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 8/19 중직자 추천 투표
- 8/19~26 전교인 설문조사
- 9/2(주일) 성찬주일
- 9/4(화) 늘푸른대학, 양육클래스 개강
- 9/7(금) 겨자씨모임 개강, 금요기도회
- 9/9(주일) 정기당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7월 26~28일, 주님의교회에서 열린 전국교회수련회. 가까이는 인천, 의정부, 멀게는 대전, 부산, 여수, 포항 등에서 온 25개 교회 136명의 청소년들이 모였다. 이를 위해 장로교 신학대학 학부생 66명과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이 머리를 맞대고 이들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이들과의 만남은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 관계기사 2면

2018 주님의교회 전교인 설문조사

19~26일 2주간 시행, 미등록교인도 대상

주님의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전교인 설문조사를 8월 19일과 26일에 걸쳐 실시한다. 이 설문조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교회 안팎의 환경과 교인의 의식구조의 변화 추세를 조사하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갖는 교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의 미래를 그리는 데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과 같이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주님의교회 사상 처음이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민수기 1:1~2)라 하여, 공동체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도 중요한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님의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이 대상으로, 등록교인과 미등록교인을 가리지 않으

며, 청년과 장년이 그 대상이 된다. 설문문의 내용은 교인 기본사항,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제도에 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며, 개인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설문지는 예배 참석할 때 주보와 함께 봉투에 밀봉한 상태로 제공되는데, 경건한 예배시간에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예배 후 또는 가정에서 작성한 설문지는 교회 로비와 사무실에 비치된 회수함에 넣으면 된다. **함즐함울**

주님의교회 전교인 운동회 예정

전교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10월 3일에 열려

주님의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0월 3일 전교인 운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전교인 수련회가 따로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마련된다. 주님의교회 전교인의 어울림 한마당의 성격을 띠며, 어린이에서부터 장년부가 함께 뛰며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실천하고, 교구별, 겨자씨별로 폭 넓은 교제와 단합을 도모하

는데 그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팀 편성은 기본적으로 교구별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각 팀의 단장은 해당 교구의 대표 장로가 맡도록 하여 교구 내 단합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 종목은 닭싸움, 공굴리기, 발야구(여자), 족구(남자), 피구(혼성), 배드민턴, 축구(남성), 릴레이(혼성), 줄당기기(전체) 등 어린이, 청소년, 여

성, 노인 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게임(놀이)과 구기 종목을 골고루 섞어서 운영하며, 총 진행시간과 부상 위험 등을 고려하여, 경기시간과 경기규칙은 적절히 조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김성구 서기장로가 위원장을 맡고, 각 교구 담당 장로가 위원이 되며, 실무 팀은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함즐함울**

여름특집 | 전국교회수련회

함께 울며 하나님께 맡긴 시간

“목사님! 전국교회수련회 일정이 나왔나요? 제가 올해 3월에 부임했는데, 청소년부 아이들이 주님의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국교회청소년수련회가 올해로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전국교회청소년수련회는 주님의교회와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교육연구회가 협력하여 주최하는 여름 청소년연합수련회입니다. 말 그대로 전국에서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올해에는 가까운 서울, 인천, 의정부부터 멀게는 부산, 여수, 포항, 대전 등에서 25개 교회 136명의 청소년이 주님의교회로 모여 들었습니다. 특별한 홍보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입소문을 통해 소식을 듣고 참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인원제에 한하여 안타깝게 참석하지 못한 교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규모가 큰 교회들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청소년부 인원이 적은 교회들은 인적, 물적 사정상 자체 수련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대형 연합수련회 중 하나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형 연합수련회들은 규모가 큰 만큼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관한 배려와 존중, 사랑과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이 주최하는 전국교회수련회는 이러한 대



삶의 문턱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사랑해 줄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형 연합수련회들과는 다른 지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교육연구회와 함께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우리가 만날 청소년들을 생각하며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교회교육연구회와 주님의교회의 이 귀한 인연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학부생(기독교교육과, 신학과, 교회음악과 66명)과 주님의교회(청소년사역원, 도움을 주신 교회 직원분들, 정신학원 관계자 등),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2박 3일간의 이야기는 우리의 노력보다 더 아름답고 따뜻하며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기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많은 청소년에게 말을 거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여수에서 온 고3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밤, 저를 찾아와 털어놓은 그 아이의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가정폭력과 폭언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수차례 자살과 자해를 반복했고, 수련회를 끝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은 알겠다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말하던 아이와 듣던 저는 함께 울며 우리 앞에 놓인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후, 각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으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아이들이 경험한 생생한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이들의 고백에 감탄하고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는 분들 드시라고 냉커피를 만들어 오신 목사님

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주셔서 감사하다 말씀하신 목사님께, 오히려 귀한 청소년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는 삶의 희망과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많은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유명한 강사, 좋은 시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의교회는 창립 이래 청소년사역의 비전을 품고 교회 안팎의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교회수련회뿐만 아니라 학원선교부, 반가운학교, 꿈나무(청소년복지), 뮤직아카데미, 교회 내 청소년부 등 곳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따뜻한 손길과 헌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청소년이 살길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청소년사역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청소년들까지 품고 섬길 수 있는 생명의 장을 마련해 주신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임경순 목사

막 오른 2018년 항존직 선거

2018년 항존직 선거가 8월 19일, 오늘 추천 투표를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은 교회 법상 교회의 직원으로써 소속 교회의 일꾼이며 기둥을 일컫는다.

주님의교회는 항존직을 선출하는데 있어 중직자의 추천, 당회의 공천을 거쳐 전교인의 2차에 걸친 직접

선거로 항존직을 선출하고 있다. 특히 주님의교회는 당회가 공천함에 있어, 공천의 공정성, 숨은 일꾼의 발굴, 기존 항존직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그 후보자를 교회의 리더 그룹인 중직 직분자들(항존직, 겨자씨 인도자, 제직부서장 등)의 추천을 받아 그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추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천 투표에서는 몇가지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①무기명 투표 ②무토론 ③공천투표대상자는 항존직의 추천을 받은 성도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선거제도가 <중직자의 추천> <당회원의 공천> <공동의회 선거>라

는 틀로 정립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교회 안팎의 사례를 검토하고, 되도록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적합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개선과 변천 과정을 거쳐온 바 있다. 교회의 미래를 맡아 헌신하게 될 항존직 선거에 교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 함줄함울

번식교회 소식

‘J주님의교회’가 ‘광야의교회’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와 형제교회인 J주님의교회에서 문안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8월 말로 주님의교회에서 분립 개척한지 창립 7주년을 맞이합니다.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광야의교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J’라는 이니셜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이단교회가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교인들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좀 무거운 감이 있지만, 이렇게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광야는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우

리 교회 또한 교회 이름에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신앙고백을 담았습니다. 또한 광야교회의 모형인 성막은 언제나 이동 가능한 텐트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로지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광야는 고독의 자리이며, 때론 생명이 위협받는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듣는 곳으로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광야는 생명이 살기에 척박한 곳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8월 말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

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는 본연의 사명

명 유지를 위한 위해 펼치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부



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걸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최근, 저희 교회는 2층 예배당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주중엔 지역주민 누구나 와서 차도 마시고, 책을 볼 수 있게끔 해서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맺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주일엔 예배공간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거여, 마천 지역은 송파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국가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

분에서 중점적인 사역을 펼치려고 합니다.

주님의교회는 제게 친정과 같은 교회입니다. 보고싶은 많은 분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의교회 출신 목사로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로 성숙해져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창진 목사



여름특집 | 영어 캠프

2018 Kingdom Vision English Camp News 킹덤비전영어캠프 소식

Sixty-one children, fourteen English teachers, and many volunteers from Church of the Lord worked together to make the 2018 Kingdom Vision English camp a great success. The theme for the camp was “Maker Fun Factory.” In morning English class and afternoon classes that included cooking, crafts, science, and recreation, the children learned that they are created by God and built for a purpose.

61명의아이들과14명의 풋스텝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자원봉사자님들의 힘이 함께 모여 2018년 킹덤비전영어캠프도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캠프 주제는 “Maker Fun Factory” 이었습니다.아침에는 영어수업과 오후에는 요리, 공예, 과학

그리고 오락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인 것과 이 세상에 목적을 갖고 태

어났음을 배웠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존슈나이더 목사

화보로 보는 2018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하늘씨앗 영아부

'교회야 마을로 가자~'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도 우리교회가 있는 우리 마을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했어요.



담쟁이 유치부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7월 21일(토)부터 22일(주일)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썩트네 유아부

썩트네 유아부는 2018년 7월 14-15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주제로 즐겁고 행복한 여름성경학교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꼭~ 약속하였습니다. 썩트네 친구들은 반별 성경학습, 공동체 게임, 식탁 교제, 센터 학습 등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사랑과 은혜를 2학기 사역 가운데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포도나무 유년부

7월 27일(금)-28일(토) 주님의교회에서 '이웃,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해요' 라는 주제로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성경 속 이야기와 여러 활동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름드리 소년부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27일(금)~29일(주일) 충북 제천에서 '복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복음을, 설교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말씀 찾기), 사연 읽어주는 선생님(사.읽.선)을 통해서 말씀도 읽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햇살뜨락 초등부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7월 27일(금)부터 29일(주일)까지 경기도 용인 한터캠프장에서 '복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타자 이야기'를 모티브로 모든 프로그램을 구성해 타자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감격하고 기뻐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언제나 늘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2박 3일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강화도 '성산 예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수련회 주제는 "What is Love?"로, 모든 순서는 '사랑이 뭐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안에 숨어 있는 불편한 공존을 뛰어넘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 안에서 분명 더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2018, 비전을 꿈꾸며 오고 간 기록

주님의교회는 베트남, 코스타리카, 헝가리,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선교사를 지원하는 업무는 해외선교분과위원회가 하고 있으며, 해외선교분과위에는 동남아팀, 미주유럽팀, 중앙아시아팀, 아프리카팀, 중보기도팀, 그리고 행정총괄팀 등 6개의 팀이 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역 가운데 여건이 허락하는 곳에서 비전트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비전트립이란 타문화권 선교의 현장을 방문,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현지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행이다. 궁극적으로 비전트립이라는 이름의 단기 선교사역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마음에 품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비전트립의 큰 목적이다.

올해에도 키르기스스탄(7/30~8/8), 베트남(8/1~8/6), 코스타리카(8/3~8/13)에서 비전트립이 진행되었고, 아프리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취소되었다. 복지선교, 문화선교, 의료선교, 교육선교 등 선교 현장에 맞게 다양하게 준비한 사역들을 현지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때로 현지 단체와 협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소중한 경험들을 쌓았다.

한편, 선교지 청소년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역비전트립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되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라고 고백한 욥의 마음으로, 사명과 헌신으로 함께 한 비전트립의 귀한 여정을 단기선교사로 헌신한 성도들의 기록으로 남긴다.

함줄함줄

여름특집 | 2018 비전트립 보고서 | 역비전트립

선교지 청소년 초청 수련회를 마치고

선교지 청소년 초청 수련회는 우리교회 파송 선교사가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현지 복음화에 헌신하는 비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련회이다.

본 수련회는 2016년에 베트남과 키르기스스탄의 청소년 초청을 시작으로 2017년 베트남 청소년, 올해 키르기스스탄 청소년 대상으로 세 번째로 진행되었다.

금번 참가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선교사가 세운 케인(Keiin)대 학생들과 키르기스-한국대(KKC) 윤바나바 선교사의 태권도 제자들이다. 교명인 ‘케인(Keiin)’은 한자 ‘계인(啓寅)’의 음에서 따온 것이며 키르기스스탄의 ‘새벽을 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케인대 학생 8인, 태권도 제자인 KKC 학생 2인, KKC 태권도 사범 1인, 윤 선교사, 케인대 교직원인 서 아스트라 선생님 등 총 13인이 참가하였고 7월 4일부터 10일까지 6박 7일 동안 진행되었다.

수련회 프로그램은 외국 선교사를 통한 우리나라 복음화 과정에 대한 김성운 전도사의 특강, 양화진 선교사 묘역 탐방, 홈스테이를 통한 우리나라 가정 경험, 고광중 안수집사의 한국어 강좌,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케이팝 댄스 강습, 경복궁과 인사동 탐방, SBS 방송국 방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내륙국가인 키르기스스탄 청소년에게 바다 구경을 시켜주고자 우리교회 부목사이셨던 신화식 목사가 계신 동해시도 방문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 인구 약 600만명 중 75%는 무슬림이고 20%는 러시아정교회 교인으로 기독교 교



인은 1%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금번 참가 학생들 중에는 믿음의 가정 출신도 있지만 부모가 무슬림이어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들의 도움과 중보로 젊은 친구들이 하나 둘씩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여 너무 감사하였다. 한편 금번 방문시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한 발레리아 김(Valeria Kim)은 현지에서 성가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또한 아버님이 고려인이라고 하여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

키르기스스탄 청년들은 금번 수련회를 통하여 해외에 처음 나가보고 바다도 난생 처음보고 한

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익숙해서 와 보고 싶었던 한국을 방문한 것에 너무 감격해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 선교사들을 통한 기독교의 역할이 컸음에 놀라워하였다. 모두 우리 교회와 교우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간증을 전하였다.

본 수련회를 함께 섬긴 동역자들,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교우들, 특히 홈스테이 제공으로 따뜻한 정을 보여준 여러 교우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김용규 안수집사

여름특집 | 2018 비전트립 보고서 | 베트남

‘드림팀’, 잘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3월이 되면서 코스타리카,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비전트립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다. 항상 선착순이라는 것을 알기에 축도가 마치자마자 로비로 가서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다. 와~! 벌써 30명이 금방 채워져 한 주가 지나니 대기자로 넘어간다. 이후 첫 모임 전, 베트남 비전트립 명단이 확정되기까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

함께 가기로 명단을 적은 분중 갑작스럽게 천국에 가신 집사님도 계셨고, 크고 작은 사고들로 7월 비행기 티켓팅을 17명으로 최종 확정! 우여곡절 끝에 이번 팀장님이신 홍완식 안수집사님께서 드림팀으로 베트남에 가게 되어 영광이시라고 하셨다. 작년 44명이 감당했던 사역을 17명이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수와 상관없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신이셨음을 알게 되었다.

7월 준비된 비전트립 준비 모임과 의료 사역, 집짓기에서 만날 어린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 배우는 시간, 몇백명의 환자들에게 아픈 곳에 위로가



될 약 포장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했다. 의료진(의사 2분, 약사 1분) 선생님들은 따로 티켓팅이 되어서 14명의 드림팀원들이 8월 1일 새벽 5시 기도로 함께 출발, 베트남 시간 새벽 2시 의료진 도착, 다음날 2일 첫날 사역으로 빈롱성 후이탄면 보건소에서 약국이 준비되자 바로 진료가 시작되었다. 의료진 선생님들은 새벽 2시에 도착해서서 집을 풀기에도 바쁘셨을 텐데 6시 기상하여 피곤한 기색 없이 함께 해주셨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체제가 남아있어 모든 사역이 정부 허가와 공무원의 동행이 함께 관리가 되어 진행되는 데 6년째 같은 분이 주님의 교회 의료 사역, 집짓기 사역을 함께 하는 분이시라는 말씀에 비전트립 사역을 보면



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길 기도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함께할 수 있음이 큰 은혜였다.

집짓기팀은 오전, 오후 각 1채씩 2채의 집을 소수의 인원이 함께 마무리했다는 소식에 놀라며 차로 갈 수 없어 모두 오토바이로 이동하면서 각각의 집에 사정과 아픔을 품고 기도하며 지어준 집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녹여주길 중보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두 번째 집 집짓기를 다녀와 정말 슬픈 사연의 집이었다며, 집을 짓기로 결정나고 가족중 2명이나 천국에 가고 집을 볼 때마다 생각나지만 눈물로 고맙다고 한 고백을 들으며 고사리같은 손으로 페인트칠한 곳곳에 주님의 향기가 함께 하길 다시금 기도했다.

3일 둘째 날 전날과 같이 의료 사역팀은 진료 시작했다. 다음날 세계로 병원으로 의료진이 출발하셔야 해서 3시로 일정을 마무리하여 총 430여명의 환자들을 진료했다. 세계로 병원 사역중 베트남 의사와 동행하여야 진료료가 되는데 빈롱에선 그런 과정 없이 진료가 된 사실에 사역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알게 되셨다고 의사 박준명 집사님의 말씀에 다시금 지금의 베트남 사역을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집짓기팀은 빈롱 학교들을 돌며 힘든 가정의 아이들에게 선물 전달과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일을 했다. 새학기

가 시작하는 8월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참 감사했다. 마지막 한 채의 집까지 페인트칠을 마무리해 총 3채의 집을 베트남 빈롱 3가정에 선물할 수 있었다.

4일 셋째 날 빈롱 기술학교 학생들에게 자전거와 학용품 나누며 어려운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다. 이후 일정으로는 베트남에서 44년간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동포교회 목사님을 뵙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 드림팀이 가는 길을 계속 손을 저어주시면서 인사하신 사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어려운거린다.

비전트립 때마다 도와주는 베트남 한국어과 학생들이 있다. 작년에 이어 다시 만난 친구도 있고 올해 처음 함

나라도 더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정성과 자기 나라도 아닌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물도, 화장실도 참아가면서 진료하는 그 모습에 감동받은 고백은 순수한 베트남 청년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충분했다. 비전트립과 함께한 베트남 청년들 중 정말 꼭 한명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베트남을 위해 사용돼달라는 기도가 버스를 탈 때마다 나왔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5일 김화수 목사님과 신학생 시절을 함께 하신 신주현 목사님의 드림교회 주일예배에 베트남에서의 주일을 보낼 수 있었다. 찬양, 기도, 말씀, 예배가 드러지는 자체가 큰 뜨거움이었다. 예배후 신목사님게 김목사님의 학생 시절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잠시 김화수 목사님의 학생 시절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2017년과는 또 다른 2018년도 베트남 비전트립에서는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작년보다 조금 더 큰 보건소 어린이들을 통해 아이들이 올해도 가자고 해서 결정한 비전트립이 참 의미있는 시간이었음을 주님이 알게 하셨다. 아침 경건회 때 목사님의 고백으로 이제껏 40평생 만나보지 못한 익살스러운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였고, 나눔과 배움이 있는 비전트립으로 더 낮아져야 하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다시금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다.

주님! 그 땅의 주인공인 한영훈, 한영



께한 친구들도 있었다. 잠시 휴가를 내어서 함께 일정을 동행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봐주려는 의료 사역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하

혼 위해 중보하는 가정되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트남! 사랑합니다. Tôi yêu bạn (포이 이우 반) 송영주 집사 / 8교구

여름특집 | 2018 비전트립 보고서 | 코스타리카

하나님이 숨겨놓은 크고 비밀한 일들

멕시코시티까지 14시간, 9시간 대기 후 다시 3시간을 가야 하는 먼 이국 땅 코스타리카. 일사불란하게 공용의 짐을 움직이고 발 빠르게 이동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슴 벅차게 이 땅을 밟는다.

선교센터에서의 첫날밤이 지나고 버스로 이동, 우리의 광복절인 8월 15일이 이곳에선 가장 큰 명절인 어머니날이라고 하는데 거리엔 선물 사는 차량들로 꽤나 북적댄다. 복잡한 도심을 지나 1시간여를 달리니 중미의 풍광이 눈을 사로잡는다. 커피 나무와 사탕수수, 이름을 알 수 없는 열대 식물들... 커피 콘테스트를 거친 커피 중 100그램에 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 황금보다 비싼 커피의 가치에 새삼 놀란다. 생태계의 다양성도 매우 뛰어나서 전 세계 생물의 6%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여기 생태계를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한다. 전체 인구의 5%가 20%의 국토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인디언들도 보 호 대상이다.

다시 길을 재촉해 달려가면 미국 제지회사에서 지었다는 아담한 산장이 나온다. 내일 있을 의료 선교를 위

있는 깨찰교회가 보인다. 작은 건물의 흙바닥에서 의료 선교를 위한 집을 풀고, 예배당에선 문화 선교를 위한 집을 푼다.

처음 보는 이 나라 아이들의 뚝뚝뚝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박국이 전도사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물 설교와 함께 스킷드라마로 연결을 시킨 뒤 가야금, 케이팝, 태권무가 펼쳐지고 나면 뒤이어 비즈 공예와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으로 아이들과 함께 한다.

그 이쁜 눈망울로 참으로 반응이 없는 아이들이지만 난 믿는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씨를 뿌리셨다는 것을~♡.

5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한 의료 선교팀도 각자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며 소통을 하고 사랑을 나눈다.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고 약을 주면서 사랑이란 약도 처방해 놓는다.

점심 식사 후 우리의 주된 사역지인 기도실까지는 다시 3시간 가량 이동을 해야 한다. 산장과는 달리 덥고 좁고 습한 데다 야생의 벌레들도 많아서 조금은 위축되는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조차 아버지께 맡기며 잠을 청한다.



구름다리를 건너고 때론 바지를 걷고 강을 건너고 산길을 1시간씩 걸어 올라가는 일정 가운데서 우리 팀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던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떠올려 본다. 가깝게는 40분, 멀게는 5일을 비닐 하나에 의지해서 잠을 청하고 계곡 물을 마시고 열매를 따 먹으면서 걸어 다니는 이곳 인디언들에게 말은 아주 소중한 교통수단이 되는데 더러는 산악용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 산꼭대기로 2~3시간을 올라가기도 하는 등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늘 걸어 다녀서 체력은 정말 좋지만 위생 상태라든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병도 많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넘쳐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교회가 세워진다.

선교회에서의 저녁 예배가 시작되고 스킷드라마가 이어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야금 선율에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비파와 수금이가 되게 해 달라는 소망이 떠오르며 조용한 파장이 일기 시작한다. 가야금 주변으로 몰려드는 아이들, 예배 후 선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손잡고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허깅을 하니 결국 높은 파도로 요동을 치고 만다. 폭풍우를 잠재우던 주님의 평안이 불같은 성령으로 새롭게 임하는 순간이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군요"하는 고백에 "그러니 너는 잠잠하라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정말 그랬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하면서 비도 줄어든고 사역 기간 내내 밤새 내리던 비도 아침이면 개고 우

리가 이동하면 멈추고 버스를 타면 다시 내리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

"선교는 순교이고, 땅끝은 창 끝이다"라는 말씀이 절절히 와 닿는 것도 지금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있기 때문 이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선 이국땅에서 보낸 23년은 어쩌면 외로움과의 싸움이지 않았을까?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씨를 뿌렸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의 사역이 결실들이 아닌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마룻바닥, 그마저도 없으면 흙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이들, 급식이 없으면 학교에도 오지 않는 이들이지만 말씀 훈련을 위해 이틀씩 걸어오기도 하고 무표정한 모습 속에 조금씩 미소를 보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숨겨놓으셨을지 더욱 기대가 된다. 하나님의 동역자 된 우리 선교팀은 코스타리카를 품에 안고 함께 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본다.

장수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의료 선교팀과 박국이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고등부 문화 사역팀 위에 함께 하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세밀히 간섭하시며 역사를 이루어가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미영 집사



해 열심히 약을 분류하고 나서야 별들과 낭만이 함께한 두 번째 밤을 사랑하는 이 팀들과 함께 보낸다.

이른 새벽 5시 여기저기서 조금씩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다. 첫 사역이라 저마다 나름의 마음들도 챙기느라 분주하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30여 분쯤 걸으니 그나마 전기가 들어오는 작은 마을로 70여 명의 성도가

오늘의 사역지는 나말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선풍기조차 없는데 웃으며 춤을 추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남미의 그루브로 멋진 춤을 보여준 이곳 아이들을 바라보며 문득 똑같이 낙태가 불법인 나라인데 인구 절반인 우리나라와 어딜 가나 아이들이 넘쳐나는 이 나라와 비교되어 부러운 마음마저 든다.

여름특집 | 2018 비전트립 보고서 | 키르기스스탄

모든 이들과 함께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로 함께 기도했던 그 땅을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먼저 몇 달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비전트립을 위한 사전교육도 받았습니다.

저희 키르기스스탄 선교팀은 총 30명으로 구성되었고 중등부, 의료부, 미용부, 식사부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정예부대로 부서별로 준비를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2장 3~4절)

선교는 영적 전쟁임을 실감나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 마귀는 함께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럴 때마다 더



욱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땅은 “목사님”, “권사님”이라는 호칭도 자유롭게 부르지 못하는 곳이어서 “목사님”은 “교장 선생님”, “권사님, 집사님”은 “선생님”으로 불렀고, 이슬람의 영향이 강한 곳이어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찾아볼 수 없고 이슬람 사원이 군데군데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윤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선교하신 지가 24년이 되었는데도 몇 명이 모여서 작은 가정예배로 드리는 실정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무엇보다 단기

선교팀을 통해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서 귀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우즈베키스탄 열방치과에서 사역하신 류반석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속에 짊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정을 마치고 키르기스스탄으로 가서 윤바나바 선교사님이 사역하신 태권도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장애인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장애인 250명과 선생님 180명 정도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예부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어색함 속에 머뭇머뭇하였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며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키르기스스탄 비전트립을 함께한 목사님과 장로님, 팀장님과 총무님, 회계 특히 매일 비타민과 같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목사님과 두 분 선생님 그리고 의료팀, 미용부, 식사팀이 서로에게 함께함이 큰 힘이 되어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을 사랑하는 모임(키사모)를 통해서 그 땅을 품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비전트립 일정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임미희 집사



청소년 사역 소식 | 중등부 성경연구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중등부의 성경공부

2018년 중등부 성경연구반이 6월 16일 상반기 공부를 마쳤다. 연간 총 26회 정도 시행되는데, 상반기에는 13회가 진행되었다. 매 주 토요일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알기 원하는 중학교 1~3학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왕상현 목사, 양기훈 전도사의 인도로 성경 본문의 저자와 대상 이해, 집필 시기와 시대, 문화적 배경과 책의 주요 주제를 들은 후 각 반으로 나뉘어 3단계를 통해 성경공부를 하였다.

첫째,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6하원칙에 따라 찾아보고 둘째, 본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며



셋째,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토의하며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하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며 부르짖으면 또 구해주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 등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요.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며 매 순간 예수님만을 붙들게 해달라는 아이들의 기도를 들을 때 같이 성경공부를 하며 느껴지는 보람과 기쁨이 있다.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와 세상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 하반기 토요일에 유혹을 떨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올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윤기선 집사 / 성경연구반 교사

PBS 1학기를 마치며



처음 PBS 신청을 받았을 때 뭘 하는 프로그램인지도 잘 몰랐고, 열떨결에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PBS를 시작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집에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기는 했지만, 제 지식이 너무 부족했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PBS를 통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과 정해진 구절을 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들 기회가 생긴 것 같아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같은 구절이었지만, 두세 번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중등부에서 '함께 걷기'라는 큐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든 생각을 적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2학기에도 PBS를 통해 성경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김지유 중등부 3학년

중등부 성경연구반 PBS(Popcorn-tree Bible School)를 소개합니다!

■ P · B · S 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바르게 알도록 하여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는 학교

■ PBS의 목적

“하나님과 함께 걷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음.

■ PBS 비전

-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청소년
-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
-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청소년
- 공동체의 너비와 깊이를 넓히며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청소년

■ PBS 교육방향

1. 성경을 향해 쌓여있던 담을 무너뜨리기 (친밀감)

- 1-1.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을 세밀하게 짚어본다.
- 1-2. 어떠한 궁금증이나 질문이라도 일단 같이 나누고 고민해본다.

2.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 (자율성)

- 2-1. 학생 스스로가 사전과 성서지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한다.
- 2-2. 성경의 전체 맥락과 각 권별 상황을 이해하여 넓은 시각을 갖게 한다.

3.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관계성)

- 3-1. 남을 통해 알던 하나님에서 벗어나 성경을 통해 스스로 발견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다.
- 3-2.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나의 믿음을 갖게 한다.

■ PBS 운영 중점사항

- 모든 질문과 대답은 존중받는다.
- 함께 만들어 가는 모임임을 인식시킨다.
- 솔직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지식과 정보의 습득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 삶으로 나아간다.
- 교육에 따르는 다양한 활동도 병행한다.

■ 교육진행(토요일 오후 2시)

진행순서	시간	진행내용	비고
전체모임	2:00 - 2:30	시작 기도, 전체 강의	
그룹모임	2:30 - 3:30	본문 읽기 및 질문 나눔	함께 걷기 및 암송 확인
그룹모임	2:30 - 3:30	본문 연구 및 답 찾기	
전체모임	3:30 - 3:50	조별 나눔 발표, 마침 기도	

목회 칼럼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범(虎)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이름에 그들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으며, 우리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을 기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며 살다간 사람들은 이름을 남겼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歷史)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왕의 후손이나 과거에 급제한 것이 이름을 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듯 역사는 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이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이 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던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창11:4)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 ‘바벨탑’은 인류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완성되지 못한 채 무너졌지만, 끊임없이 쌓여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이르러 역사에 감추어진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존재감 없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 은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은 덜 유명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주님 우리를 품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면 이름 없이 이 땅을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교회’로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교회’라는 이름이 훗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오늘 ‘주님의교회’를 이루고 있듯, 오늘 우리의 모습은 훗날 반드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혹 성도들이 제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도나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시대에 저도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면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길 애쓰지 않아도 반드시 누군가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이름으로 이 세상은 조금더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이 더 밝게 빛나도록 좋은 이름을 남기며 살아가는 주님의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다니엘 12장 3절

신주찬 목사

묵상 일기

하얀 이불 얼룩 지우기

새벽묵상일기(2018.07.20.)

새벽에 깨니 하얀 이불에 검은색 얼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염색한 머리에서 묻어났 것 입니다. 이불 얼룩을 보이지 않게 덮었다가 다시 보이도록 해 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기도 동안 하얀 이불 바탕에 그려진 검은 얼룩이 나의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기도로 나아가려 하면 다시 얼룩사진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기를 몇 번 계속하다가 귀가하였습니다.

어떻게 얼룩을 제거할 수 있을까하

는 생각이 계속 되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 얼룩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귀가하자마자 얼룩지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세면대 앞에 얼룩진 부분을 물과 비누로 씻기도 하고, 이불 전체를 물에 담가 놓고 얼룩이 빠지기를 기다리며, 다른 방법도 찾아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문득 다윗의 죄악에 대하여 나단을 준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온갖 수단으로 죄를 은폐하며 점점 황폐의 길로 가고 있다. 반복되는 은폐를 중단 시켜야 한다.

나단을 보내 선명하게 죄를 드러내야 하겠다. 죄를 인정하게 해야겠다. 더 이상 은폐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망하면 안 되겠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죄가 확실히 보이도록 하얀 바탕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그의 죄를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죄의 인정, 죄의 중단, 회개함, 죄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얀 이불에 남아있는 얼룩을 그냥 놓아둘 수 없는 마음처럼 죄악의 얼룩을 덮어버리지 않고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그냥 두고는 못견디는 동일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얼룩을 지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우리 삶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을 중단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죄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화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삼하12:9) 김낙균 안수집사

아기나들이



이지원 아기

2018년 3월 16일생

1. 강건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2. 겸손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3.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빠 이주왕 / 엄마 박미정, 2018년 7월 15일 3부 예배



조아인 아기

2018년 6월 4일생

1.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선물 조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 듬뿍 받고 사랑 나누는 기쁨 누리는 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2.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주신 달란트 맘껏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3. 맡기신 귀한 선물 아인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저희 부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건강 지키며 사업장에 축복도 허락하여주세요

아빠 조홍진 / 엄마 황희선, 2018년 7월 29일 2부 예배

함글함글,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 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알립니다

2019년 <함글함글>을 새롭게 빛낼 역량 있고 젊은 편집장과 기자를 모집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문서선교를 위해 펴내는 격주간 교회 신문인 <함글함글>의 편집장과 기자를 모집합니다.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체로, 하나님과의 소통, 교회와의 소통, 성도간의 소통을 위한 지면으로 구성됩니다.

- 세례자이며 주님의교회에 등록한 지 3년 이상 되는 분.
- 신문사, 잡지사, 학보사, 출판사에서 취재, 편집 경험이 있거나, 없지만 배우고 싶은 분.
- 교회 내 여러 사역 활동을 두루 알고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분.
-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며, <함글함글> 기자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
- 토요일 아침 8시에 있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
- 만 50세 미만이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

2019년을 앞두고, 새로운 감각과 관점으로 <함글함글>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역량 있는 교우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위에 적힌 여러 조건에 맞지 않아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hamletter@daum.net 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함글함글

2018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교육안내

- 교육일정 : 2018년 9월 13일 ~ 11월 29일
매주 목요일 오후 1-5시
- 장 소 : 각당복지재단 강당 (종로구 경희궁길 29)
- 대 상 :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
- 교 육 비 : 130,000원 (교재비포함)
주님의 교회 등록교인 본인부담 50,000원
- 특 전 : 교육 수료 후 200시간 봉사 시 소정의 시험 후 한국호스피스협회 인증서 발급
- 등록문의 : 소봉순부장 010-5230-4120
설정희총무 010-4654-5108

알립니다

2018 향존직 후보 중직자 추천 투표

일시 : 오늘(8/19) 오전8:30~오후3:30

장소 : 지하 다목적실(사랑나무실 맞은편)

참여자 : 장로(은퇴, 사임, 협동), 안수집사(시무, 은퇴), 권사(시무, 은퇴), 겨자씨인도자, 제직부서장

교회창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인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기간 : 8/19~8/26 (2주간)

대상 : 주님의교회에 출석하시는 만19세 이상의 모든 교인

목적 : 교회 안팎의 환경변화와 교인의 의식구조를 파악하여 향후 목회 및 사역의 방향과 교회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 설문지는 19일(주일) 예배시 배포합니다.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일시 : 8/31(금) 오후5:00~9/1(토) 오전11:30

장소 : 중예배실(지하), 대예배실

대상 : 겨자목, 겨자체, 겨자씨 인도자, 권찰

▶ 특강 및 교구모임, 가정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전교인 가정세미나 "가정과 다음세대"

일시 : 9/1(토) 오전10:00~11:30 대예배실

강사 : 신형섭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

대상 :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

9.10월호 큐티책(큐티인) 판매

일시 : 8/19, 26(2주간) 오전8:30~오후2:00 로비(1층)

가격 : 5,000원(권당 할인금액 500원은 교육목회원 큐티책 지원에 사용됩니다)

퍼스펙티브 선교교육 모집

일시 : 9/13~11/29(12주) 매주 목 오후7:00~10:00

장소 : 제3집회실(1층)/교육비: 8만원(주님의교회성도)

대상 : 선교에 관심 있으신분

접수 : 8/19~9/9 (1층로비)

문의 : 손영익 장로(010.2287.9258)

양육클래스 가을학기 개강 9/4(화)~12.8(토)

접수 : 8/26(주일), 9/3(주일) 오전8:30~오후2:00

접수장소 : 1층 로비

문의 : 방순희 권사(010-3622-1368)

유소년 축구 모집 및 2학기 개강(5세~13세)

일시 : 9/2(주일)~11/18(주일) 매주일 오후1:30 학교 운동장

접수 : 8/19(주일), 26(주일) 2주간

문의 : 좌봉준 집사(010-8759-8904)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